上帝 超越性에 대한 畏敬心의 樣相

高 南 植*

目 次

Ⅰ. 序論
Ⅱ.上帝의 超越性
Ⅲ. 天・地界大權과 畏敬心
Ⅳ. 人界大權과 畏敬心
Ⅴ. 結論

Ⅰ. 序論

종교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세계의 의미를 묻고 세계 안에 자기의 위치를 확집(確執)하며 삶의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종교의 살아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 마음이 작용해서 초월성을 지향하며 궁극적인 실재와 관련되는 경우에 이를 신앙이라 한다.(황선명,1990:124)

경(敬)은 『대순진리회 요람』에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一身)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인간에게 있어 경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외경과 경배에서 나오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지성봉축(至誠奉祝)에 변함이 없고 양면이 없어야 경(敬)」이라는 내용은 이점을 보여 준다. 상제가 나타낸 권능은 인간에게 공경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러한 공경심을 토대로 신앙적 기틀이 형성되었다.

상제의 초월성은 혼란한 상황속에서 질곡당하는 당시 민중들에게 희망의 징표가 되었다. 민중의 곁에서 숨쉬며 절대성을 발현하는 상제는 경외의 대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들은 동학에서 상처받고 외세에 의해 유린당한 아픔을 초월성을 보여주는 상제의 이적(異蹟)에서 위로 받았으며 상제를 자신들을 구제해 줄 영웅(英雄)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상제는 몸소 민중들에게 뛰어 들어 초월성을 보이고 광구천하의 대업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으며, 상제의 초월성을 곁에서 지켜 보며 형성된 종도들의 자연스러운 공경심 그것은 원초적 신앙심의 표현이었다.

이글은 상제의 초월성과 그를 통해 종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종교 경험을 경과 관련 서술한 것이다. 이글의 주제가 이미 다루었던 주제인 신조(信條)의 사강령(四綱領) 중 경천(敬天)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논지와 관계되는 「상제의 초월성(超越性)」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선천 천관과 상제의 초월성」부분의 내용과 관련지어 재정리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Ⅱ. 上帝의 超越性

다산(茶山)은 천(天)이라는 말이 상제와 같이 쓰이는 용어라고 말한다. 여기서 '천의 주재자가 상제이다'라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산이 상제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상제는 '천(天)의 주재자(主宰者)'이면서, 동시에 천은 상제의 별칭도 된다. 그런데 고대 문헌에서는 상제라는 말이외에도 황천(皇天), 호천(昊天), 상천(上天) 등의 호칭으로도 많이 쓰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다 천을 하나의 인격적(人格的) 주재자(主宰者)로 보는 것이다. 다산은 하늘의 본 이름(正名)은 '상제(上帝)'라 한다. '천(天)'은 상제(上帝)가 있는 자리로서 상제를 가리키는 이름이 된다고 한다. (琴章泰,1993:121-122) 대순사상에서는 상제의 개념이 천을 포함한 우주를 삼계대권으로 주재해 삼계공사(천지공사)를 통해 기존 선천문제의 해결과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는 이상세계를 열어준 신앙대상인 상제에게서 찾고 있다. 초월성 발현에 일반적 체계와 질서가 신도(神道)라는 용어로 요약되고, 신도를 통해 상징화되어 인간에게 나타남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일으키게 한다.

증산(상제)의 인격천이 지니는 위격은 최고신 상제로서 다양한 신들간의 관계속에 제신을 거느리는 자리에 있으며, 인간사회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자신의 권능으로서 인세에 강세하여 전체인류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신이라 할 수 있다.(이경원,1998:128) 그점을 이제 상제의 신도(神道)와 삼계대권(三界大權)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상제의 신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연계돼 주창되었다.

첫째 신성 불 보살들의 하소연으로 구천상제는 삼계를 대순(大巡)했고 삼계 혼란의 요인이 서양 과학물질문명의 세계적 전파속에 그 문명이 물질에 치우쳐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천리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면에서 모든 죄악을 저질러 신도(神道)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에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신도의 권위 회복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高南植.1992:238)

둘째 상극(相克)과 원(冤)으로 생긴 선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삼계공사이며 삼계공사의 근본원리가 신도(神道)에 있다.

>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神道)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공사 1-3)

셋째 천하일가의 형세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유불선 도법에 의해 다양하고 복잡한 미래세계를 대응해 우주적 질서를 세울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천상제는 유불선 법술의 한계상황을 극복해 제생의세와 화민정세 할 수 있는 원리가 현묘불칙(玄妙不則)한 공을 이루는 신도의 무위이화(無爲而化) 작용에 있음을 밝혔다.

>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최풍헌(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진묵(震默)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송구봉(宋龜峰)이 맡았으면 여덟달에 평란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 불, 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 61절)

위에서 선후천 교체기에 있어 상극으로 야기된 원(冤)의 해소(解消), 상도(常道)의 회복(回復), 우주차원(宇宙次元)의 도법(道法)의 필요성(必要性)등에 신도가 천지공사의 근본 원리(原理)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천지공사란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행하여진 신명계와 인간계, 그리고 자연계의 기존 운행질서를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을 말한다.

또 도통진경(道通眞境)의 후천(後天) 천하일가(天下一家)에서 모든 통일된 문화의 구현을 이루는 천지공사는 신도(神道)의 원리하에 도통신(道通神), 문명신(文明神), 명부(冥府) 주장신(主張神)등 신계 중추적 위치의 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본래 상도(常道)로 있었던 신도의 권위추락(교운 1장 9절)을 해원(解冤)으로 회복시켜(공사1장 3절) 후천의 신계질서로 조정해 새로운 도수에 따라 평천하(平天下)하는 것이다.

신도(神道)공사란 원한을 품고 죽은 신명들의 원한을 제거해 줌으로써 신명계의 평화와 그에 따른 인간계의 평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해원공사(解冤公事)〉와, 신명계에서 갈등을 나타내는 신명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신명의 배치〉 그리고 각 지방과 민족 및 문명에 따라 서로 이질성을 나타내는 신명들을 통일시키는 〈통일신단의 구성〉 등을 포함한다.(盧吉明.1994 改正增補版:433,435)

이처럼 인계와 신계는 「신사가 이루어지고 인사가 이루어진다. 인사가 이루어지고 신사가 이루어진다.(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교운 2장 42절,陰陽經)는 내용처럼 상호 유기적이고 긴밀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신(神)과 삼계(三界)간의 질서는 신도의 원리가 되고 천지공사를 이루는 근본구조로 작용해 기존 상도(常道)의 회복과 후천선경 건설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전지전능의 권능과 최고의 신격을 가진 상제를 중심으로 여러 높은 신들이 우주의 조화정부(造化政府)를 구성하고 그 정부 조직아래 백성에 해당하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여 신명계라는 영역을 구성하고 있고, 이 신명계는 항상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계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대순종학 교재 연구회. 1998:122)

상제(上帝)는 천지공사를 행할 때마다 모든 신명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천지의 모든 일을 논의하는 조화정부(造化政府)를 결성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조화정부란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신명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변되게 회의를 하고 결정하며, 그것을 집행하는 우주의 원동기관(原動機關)으로서 〈통일신단〉의 결성을 의미하며 모든 신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신의 권능으로 신명들을 불러 모았다.(盧吉明.1994 改正增補版 :433)

이처럼 신도는 신을 매개로 천지인과 연계되어 상제에 의해 주재되는 질서이고, 천을 공경한다는 경천에서 천과 삼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신이 상제에 귀속되어 상제의 천명에 의해 움직이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상제는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교법 2장 7절)고 하였으며 일심(一心)을 강조하여 일심을 가지는 자는 서촉에서도 찾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진법(眞法)의 주재자로서의 상제에 대한 일심이 삼계에서 인간 안심의 근원이 되고, 인간 복록수명(福祿壽命)의 시작도 상제에 대한 일심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高南植. 1999:569)

>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 (교법 2장 4절)

또 신조(信條)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수도의 요점을 담고 있는 대순진리회 요람에서도 『수도는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대월(大越) 상제(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奉祝)하여야 한다.』라고 적어 신조(信條)의 시작이 신앙의 대상인 상제에 대한 안주(安住)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 내용은 신도의 주재자(主宰者)이고 삼계대권의 주재자이며 개벽장(開闢長)이 상제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 심신(心身)의 안(安)은 새질서인 신도에 따르는 것이고, 신도의 시원이 상제에 있으므로 결국 상제에 대한 성경신(誠敬信)으로 귀일(歸一)된다.(高南植. 1999 : 568-569) 이것은 경의 궁극적 대상이, 천은 물론이고 지계 인계 신계까지 삼계대권으로 관감만천(觀

鑑萬天)하는 상제에게 있음을 나타낸다. 상제의 천지공사에서의 대권 행사는 삼계에 내재되어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선천의 다양한 문제들을 삼계대권으로서 해결하는 상제의 권능을 고찰함으로써 경의 궁극적 대상이 상제에게 귀착됨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 내용은 삼계를 통제하는 상제의 권능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천계 지계 인계대권으로 나누어 전경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천계 지계 인계에 대한 대권의 구분은 권능의 결과가 어느 계에 나타났는가보다는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위해 권능이 직접적으로 용사된 계를 따라 분류하였다.

먼저 삼계대권은 천지인 삼계에 대한 상제의 권능으로 삼계대권의 용사는 앞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신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상제의 신에 대한 용사는 귀신이 진리에 지극하니 천지공사를 귀신과 함께 판단한다고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따라 천지공사에 신을 부르기위해 여러 가지 부호 글 그림등이 사용되었다. 우사(雨師)라는 신을 불러 비를 내리기도하고 각종의 신들을 때에 따라 불러 삼계공사를 처결하였다. 이것은 신이 상제의 명으로 천지인에 작용하여 소정의 일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먼저 삼계의 문제속에 천에 있어서의 문제를 보면 선천에서 만물이 시비에 따라 존재하여 천의 작용도 노천(老天), 명천(明天)등의 시비(是非)가 나타났다.

>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두 星宿로 붙여 보내리라. 만물이 다 시비가 있되 오직 성수는 시비가 없음이라. 원래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하였거늘 세상 사람은 도리어 그 일을 밉게 보아 흉악의 머리를 삼아 욕설로 역적놈이라 명칭을 붙였나니 모든 역신은 이것을 크게 싫어하므로 만물 중에 시비가 없는 성수로 보낼 수 밖에 없나니라. 하늘도 老天과 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는 시비와 상극이 없나니라.(교법 3장 6절)

이에 따라 선천 묵은 하늘은 인간세상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시켰다.

>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핍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되

> 느니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셨도다. 상제께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 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 (공사 1장 11절)

여기에서 묵은 하늘이 행한 사람을 죽이는 공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늘 접하는 하늘이 나타내는 자연현상이며 그것은 신의 작용을 따라 일어나고 이러한 자연의 일기변화가 인간 일상생활에 재난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지의 사실로 선천 역사속에 있었던 홍수 가뭄 태풍등으로 나타난 각종 피해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그로인해 야기된 인간 의식주의 궁핍, 빈곤, 기아가 만연되었다. 또한 묵은 하늘의 폐해는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인위적인 선천 인세의 의식과 의례에 있어서도 오랜 세월동안 심각한 폐단을 일으킨 것으로 지적된다. 이것은 하늘의 작용이 인간에게 소정의 영향을 주는 연계성을 또한 보여준다.

> 세속에 전하여 내려온 모든 의식과 허례를 그르게 여겨 말씀하시길 "이는 묵은 하늘이 그르게 꾸민 것이니 장차 진법이 나리라" 하셨도다.(교법 1장 38절)

그리고 이러한 선천에 존재해온 묵은 하늘에 대해 해원을 통해 상제는 묵은 하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은공사를 처결한다.(공사 3장 13절)

중국철학에서 천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원천이고, 그 존재들이 존재해가는 유일한 광장이요 귀숙처이며, 모든 존재들이 협화해서 함께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해 가는 삶의 길의 보편적 섭리요 총체적 공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충열,1996 초판4쇄:16-17) 이러한 천의 확장된 개념으로 대순사상에서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삼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그속에서 고대로부터 천을 외경시한 사상에서 다루어온 자연천 혹은 인격천등의 개념이 이미 천의 의미보다 큰 우주적 차원으로 정의되어 다루어진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천지인 삼계와 신계를 임의대로 주재하는 상제의 행적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상제의 천계대권은 주로 천계 자연현상과 관련된 권능이 중심이 된다.묵은 하늘로 대표되는 선천을 움직여온 신들의 교체와 조정을 통해 천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천의 영향을 받는 인계에도 진법(眞法)을 구현하는 것이다.

천지인 삼계는 유기적으로 신과 연계되어 존재하는 관계이므로 그 작용을 단정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선천 천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제 권능에 대한 사례를 『전경』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그 실제적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다. 삼계의 유기적 관계속에서 상제의 천계대권(天界大權)은

> 상제께서 삼계(三界)의 대권(大權)을 수시수의로 행하셨느니라. 쏟아지는 큰비를 걷히게 하시려면 종도들에 명하여 화로에 불덩이를 두르게도 하시고 술잔을 두르게도 하시며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 밖에 풍우,상설, 뇌전을 일으키는 천계대권을 행하실 때나 그외에서도 일정한 법이 없었도다.(공사 1장 4절)

에서 풍우, 상설, 뇌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관련 천계대권은 더욱더 다양한 면으로 『전경』에 나타나고 천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자연현상을 임의대로 용사하는 점이 중심이 된다. 제반의 자연현상(강우)을 임의대로 멈추거나 바꾸는 행적이 기록되어 전한다.

> 동리 사람들이 상제를 배알하고 오늘은 단오절이오니 學仙庵에 가서 소풍하시기를 청하거늘 상제께서 응락하시고 白賢을 데리고 가시다가 도중에서 폭우가 쏟아지려고 하는지라. 사람들이 달음박질하여 비를 피하려고 하나 상제께서 자현을 불러 "천천히 갈지어다"고 이르시고 노방에 앉으셔서 담배를 피우시고 몰려오는 구름 쪽을 향하여 담배 연기를 품으셨도다. 그리고 자리를 뜨시며 천천히 걸어 학선암에 이르시니 곧 비가 억세게 내리기 시작하였도다. (권지 2장 7절)

> 상제께서 양지에 글을 쓰시면서 공사를 보시던 중에 김보경을 불러 "동쪽에 별이 나타났느냐 보아라" 하시니 그가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서 "검은 구름이 가득히 하늘을 덮어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창문을 열고 동천을 향하여 헛기침을 하시니 구름이 흩어지고 별이 나타나는도다.(권지 2장 2절)

> 상제께서 와룡리 황응종의 집에 계실 때 어느날 담뱃대를 들어 태양을 향하여 돌리시면 구름이 해를 가리기도 하고 걷히기도 하여 구름을 자유 자재로 좌우하셨도다.(권지 2장 11절)

위의 내용은 비를 그치는 일이 침을 흙에 덮거나 담배연기(혹은 담뱃대) 기침 등으로 구름의 작용을 조정해 있게 됨을 보여준다.

하루는 원평에서 음식을 드시고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우박이 올터이니 장독 덮개를 새끼로 잘 얽어놓아라" 하시니 여러 사람은 무심히 들었으나 오직 최명옥만이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과연 두어시간 후에 큰 우박이 내려 여러 집 장독이 모두 깨어졌도다. (권지 2장 35절)

천기(天氣)적인 날씨의 변화를 미리 알고있는 상제의 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권능하에 상제는 일기의 변화를 임의대로 주재하였으며 글씨나 음식(감주:권지 1장 25절)등을 통해 일기(日氣)조절 공사가 이루어졌다.

"풍운우로상설뇌전(風雲雨露霜雪雷電)을 이루기는 쉬우나 오직 눙이 내린 뒤에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린 뒤에 서리를 오게 하기는 천지의 조화로써도 어려운 법이라" 말씀하시고 다시 "내가 오늘 밤에 이와 같이 행하리라" 이르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과연 눈이 내린 뒤에 비가 오고 비가 개이자 서리가 내렸도다.(권지 1장 22절)

관직에서 곤경에 처한 관리를 눈비와 날씨조절로 민요(民擾)를 없애 구해주는 제생을 상제는 베풀었다.이 공사에는 종이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써서 소지(燒紙)시키는 방법이 쓰였다.

갑진년 十一월에 전주에 민요가 일어나서 인심이 흉흉 하니라. 이 소란중에 상제께서 전주에 이르셨도다. 김 보경이 상제를 배알하니 상제께서 "김 병욱이 국가의 중진에 있으니 민심의 동요를 진무하여 그 천직을 다하여야 할 일이거늘 그 방책이 어떤 것인지" 하시고 궁금히 여기시니 보경이 병욱에게 이것을 전하였느니라. 병욱은 "나의 힘으로 물 끓듯 하는 민요를 진무할 수 없으니 상제의 처분만을 바라옵니다"고 말씀드렸도다. 상제께서 보경으로부터 사정을 알아차리시고 웃으시기만 하시니라. 이날 밤에 눈비가 내리고 몹시 추워져 노영(靈營)에 모였던 민중은 내리는 눈비와 추위에 견디지 못해 해산하고 사흘동안 추위와 눈비가 계속 내리므로 민중이 다시 모이지 못하니 민요는 스스로 가라앉았도다.(행록 3장 25절)

이러한 대권의 용사속에는 다음의 내용처럼 특히 홍수, 가뭄, 병충해등 자연재해로 농사에 피해를 입어 곤경에 처한 생민(生民)의 삶을 보살펴 주는 상제의 구세제민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Ⅲ. 天·地界大權과 畏敬

상제가 보여준 권능과 예지가 종도들로 하여금 외경(畏敬)을 일으키게 하였다. 종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스승을 공경하는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된다.

먼저 김형렬의 경우를 일예로 보기로 한다. 김형렬은 상제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널리 전해지게 되자 찾게 된다. 그가 상제를 따르게 된 것은 먼저 상제의 권능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이며 이것은 김형렬이 외경의 대상으로 상제를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이 해에 고부인(古阜人) 전봉준(全琫準)이 동학도를 모아 의병을 일으켜 시정(時政)에 반항하니 세상이 흉동되는지라. 이 때에 금구인 김형렬(金亨烈)이 상제의 성예를 듣고 찾아 뵈인 후 당시의 소란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글 읽으시기를 청하므로 글방을 폐지하고 전주군(全州郡) 우림면(雨林面) 동곡(銅谷) 뒷산에 있는 학선암(學仙庵)으로 가셨으나 그 곳도 번잡하기에 다른 곳으로 떠나셨던 바 그 곳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도다.(행록 1장 21절)

형렬은 상제에 대한 경외심을 소문을 통해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지만 상제를 따르던 초기에 직접 상제의 권능(權能)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하여 상제의 권능을 몸소 경험하고 싶은 호기심을 보인다.

> 김 형렬은 상제를 모시고 있던 어느날 상제께 진묵(震默)의 옛 일을 아뢰었도다. <전주부중(全州府中)에 한 가난한 아전이 진묵과 친한 사이로서 하루는 진묵에게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물으니 진묵이 사옥소리(司獄小吏)가 되라고 일러주니 아전은 이는 적은 직책이라 얻기가 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으나 그 수에 아전은 옥리가 되어 당시에 갇힌 관내의 부호들을 극력으로 보살펴주었나이다. 그들은 크게 감동하여 출옥한 후에 옥리에게 물자로써 보답하였다 하나이다. 그리고 진묵은 밤마다 북두칠성을 하나씩 그 빛을 가두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여 칠일만에 모두 숨겨버렸다 하나이다. 태사관(太史官)이 이 변은 하늘이 재앙을 내리심이니 천하에 대사령을 내리시어 옥문을 열고 천의에 순종하사이다하고 조정에 아뢰오니 조정은 그것이 옳음을 아고 대사령을 내렸다 하나이다.> 이 말을 상제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그러하였으리라. 내가 이를 본받아 한달 동안 칠성을 숨겨서 세상 사

람들의 발견을 시험하리라>하시고 그 날 밤부터 한달 동안 칠성을 다 숨기시니 세상에서 칠성을 발견하는 자가 없었도다.(행록 1장 31절)

김 형렬은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상제를 모시고 있었도다. 그러던 어느 날 형렬이 상제의 말씀 끝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송시열(宋 時烈)은 천지의 정기를 타고난 사람이고 그가 있는 주택의 지붕에는 백설이 쌓이지 못하고 녹는다 하나이나> 라고 아뢰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랴. 이제 나 있는 지붕을 살펴 보라>하시니라. 형렬이 밖에 나가 살펴보니 일기가 차고 백설이 쌓였는 데도 오직 계시는 그 지붕에 한 점의 눈도 없을 뿐아니라 맑은 기운이 하늘에 뻐쳐 구름이 가리지 못하고 푸른 하늘에 까지 통하니라. 그후에도 살펴 보면 언제나 상제께서 머무시는 곳에 구름이 가리지 못하는도다.(행록 1장 36절)

천계대권과 관련해서 볼 때 진묵은 칠일을 걸려 북두칠성을 감췄으나 그 날 밤부터 한 달동안을 북두칠성을 감추는 상제의 권능과, 송시열의 주택에 백설이 쌓이지 못하는데 대해 상제가 계신 곳은 백설에도 눈이 쌓이지 못하고 푸른 하늘에까지 맑은 기운이 통하는 것을 보고 형렬은 상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것은 상제 권능에 대한 외경속에 나타나는 신앙심이라고 볼 수 있다. 상제가 김형렬에게 보여준 권능은 김형렬의 신심을 높이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 김형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제에 대한 공경을 더해 나가게 된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가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할까. 물도랑을 내고 하늘에 비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상제께서 인사를 드리는 김갑칠(金甲七)에게 농사 형편을 물으시니 그는 "가뭄이 심하여 아직까지 모를 심지 못하여 민심이 매우 소란스럽나이다."고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네가 비를 빌러 왔도다. 우사(雨師)를 너에게 붙여 보내리니 곧 돌아가되 도중에서 비가 내려도 몸을 피하지 말라"고 이르시니라. 갑칠은 발병 때문에 과히 좋아하지 아니하니라. 상제께서 눈치를 차리시고 "사람을 구제함에 있어서 어찌 일각을 지체하리오" 하시고 가기를 독촉하시니라. 갑칠이 서둘러 돌아가는 길에 원평에 이르러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도다. 잠깐사이에 하천이 창일하여 나무다리가 떠내려 가게 되니라. 행인들은 모두 단비라 일컬으면서 기뻐하는도다. 흡족한 비에 모두들 단숨에 모를 심었도다.(행록 4장 31절)

김갑칠은 가뭄을 해결할 방법으로 상제의 권능을 생각하고 상제를 찾게

된다. 이미 그가 온 이유를 알고 있는 상제 다시 김갑칠의 마음에는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고 계신 상제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있게 된다. 그러나 김갑칠은 발병에 비가 내려도 몸을 피하지 말라는 상제의 말씀에 주저한다. 병에 걸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 망설임이다. 비를 내리는 일은 가뭄으로 농사일에 고통받는 민중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개인적 사정에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속히 민중을 구제하려는 상제의 마음에 대해 김갑칠은 자신의 부족했던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상제의 명을 받은 자신의 행동으로 모를 심는 민중들을 바라보며 보람과 상제에 대한 공경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된다.

> 김명칠은 태인 백암리에 사는 종도인데 산비탈에 땅을 개간하여 거름을 주고 담배를 심어 가꾸었도다. 하루는 번개가 치고 비가 세차게 퍼붓느니라. 비탈진 산전에 거름을 준 후라 억수가 내리면 거름은 물론 밭두둑까지 사태가 나는 것이 상례이기에 명칠이 가슴을 치며 "내 농사는 이것 뿐인데 이 억수로 버리게 되었으니 어찌 살라"고 울음을 터뜨렸도다. 상제께서 긍휼이 여겨 "내가 수재를 면케 하리니 근심 걱정하지 말지어다"고 이르시니 내리던 비가 개는지라. 명칠이 산전에 뛰어 올라가 보니 다른 사람의 밭은 모두 사태가 났으나 자기 밭만은 조금도 피해가 없었도다. 명칠은 새삼스럽게 상제를 공경하는 마음을 게을리 하지않았느니라.(권지 2장 16절)

앞의 경우와 달리 상제는 폭우(暴雨)에 의한 농사 피해에 안타까워하는 김명칠에 대해 비를 그치게 함으로써 그의 농토를 보호해준다. 농토는 민중에게 있어 삶의 원천이고 생계의 터전이다. 이러한 농토가 큰 비로 거름이 없어지고 밭마저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하에서 상제의 보살핌으로 구제되었을 때 인간 심성의 깊은 곳에서 외경의 마음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연현상을 임의대로 주재하는 상제의 권능에 인간이 외경심을 갖게되는 것은 비를 내리고 그치게 하는 일에서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최 창조와 김 형렬의 집에서 뇌성을 일으키는 권능을 보이고 충재(蟲災)를 없애기 위해 뇌성을 일으켜 온 지역 사람들의 농작물을 잘 되게 하였다.

> 상제께서 추운 겨울 어느날 창조의 집에 오셔서 벽력표를 땅에 묻으시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천지를 진동하니라. (권지 2장 25절)

상제께서 어느해 여름에 김형렬의 집에 계실 때 어느날 밤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강감찬은 벼락칼을 잇느라 욕보는구나. 어디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며 좌우 손으로 좌우 무릎을 번갈아 치시며 "좋다 좋다" 하시니 제비봉에서 번개가 일어나 수리개봉에 떨어지고 또 수리개봉에서 번개가 일어나 제비봉에 떨어지니라. 이렇게 여러번 되풀이 된 후에 "그만하면 쓰겠다" 하시고 좌우 손을 멈추시니 번개도 따라 그치는지라. 이튿날 종도들이 제비봉과 수리개봉에 올라가서 살펴보니 번개가 떨어진 곳곳에 수십장 사이의 초목은 껍질이 벗겨지고 타 죽어 있었도다.(권지 1장 23절)

유월 중복날 상제께서 대흥리 부근 접지리 마을에서 경석을 비롯하여 여러 종도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중복인 오늘에 뇌성이 울리지 않으면 농작물에 충재의 해가 있으리라." 날이 저물도록 우뢰소리가 없기에 상제께서 하늘을 향하여 "어찌 생민의 재해를 이렇게도 좋아하느뇨"고 꾸짖으시고 종도도에게 마른 짚 한 개만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을 무명지에 맞추어 잘라서 화롯불에 꽂고 다 태우시니라. 갑자기 번개가 북쪽에서만 번쩍이니 다시 상제께서 "북쪽 사람만 살고 타곳 사람은 죽어야 옳으냐"고 하늘을 향하여 꾸짖는 듯이 소리를 치시니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도다. (권지 2장 17절)

종이에 글을 써 만든 벽력표(霹靂票)를 땅에 묻자 천둥과 번개가 치는 일을 목격한 최창조와 봉우리 위에 떨어지는 번개를 본 김형렬과 종도들의 심경은 그것이 뇌성이라는 점에서 비를 주재한 일에서 느꼈던 심경보다 더 두려운 외경과 놀라움이었을 것이다. 뇌성을 일으켜 생민의 삶을 도와주는 상제의 이적에서 종도들은 외경과 함께 상제의 의지가 제생의세(濟生醫世)에 있음을 깊이 알게 된다. 이처럼 농사일을 주재하는 일만이 아니라 상제에 의한 뇌성은 인간세상의 도와 천륜을 세우는 일로 쓰여져 죄를 응징하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상제께서 이 곳에서 형렬을 만나 그를 데리시고 한산(韓山) 객주집에 좌정하시고 원일을 부르셨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술을 가져오라. 내가 오늘 벽력을 쓰리라" 하시니 그는 말씀에 좇아 술을 올렸더니 상제께서 잔을 받으시고 한참 동안 계시다가 술을 드시니 여태까지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음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며 벽력이 크게 일어나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태인에 유숙하는 사람이 많았도다. 상제께서 이 일에 대하여 형렬과 원일에게 설명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침에 객망리 주막 앞을 지날 때에 한 소부가 길가의 풀에 내린 이슬을 떨며 지나가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소부가 친정의 부음을 듣고 가노라 하더라. 조

금 후에 그 뒤를 한 노구가 지팡이를 짚고 가며 소부의 자취를 묻는도다. 내가 그 연유를 따져 물었더니 그 노구가 앞에 간 소부는 나의 며느리이나 가운이 불행하여 어제 밤에 자식을 잃었는데 며느리가 장사를 치루기 전에 오늘 새벽에 도망 갔나이다. 며느리는 저희끼리 좋아서 정한 작배이니다고 대답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인연이오. 저희끼리 작배한 것은 천연이라. 천연을 무시하여 인도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오늘 내가 벽력으로써 응징하였노라"고 하셨도다. 그 며느리는 벽력에 죽었노라고 전하는도다.(행록 3장 36절)

위의 내용에서처럼 천연(天緣)으로 이루어진 천륜을 버리고 떠나가는 아낙을 응징하는 상제의 단호함에서 형렬과 원일이 느낀 감회는 천륜으로 세상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자하는 상제의 의지에 대한 것이었으리라. 다른 경우에 있어 상제에 대한 무례(無禮)에도 크나큰 이해로 임하셨던 상제의 청천벽력 같은 처벌에 두 사람은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해야겠다는 마음과 함께 윤리성에 대한 각성을 갖게 되었으며 지업한 면모를 상제에게서 느꼈을 것이다.

자연계에 나타난 상제의 권능은 바람을 일으키는 초월성으로도 표출되었다. 바람을 일으키는데 있어 제갈량의 과거 예가 비유되고 바람으로 종도 김경학의 집 화재를 끄는 이적이 행해졌다.

상제께서 "제갈량이 제단에서 칠일 칠야 동안 공을 드려 동남풍을 불게 하였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라. 공을 드리는 동안에 일이 그릇되어 버리면 어찌하리요" 말씀하시고 곧 동남풍을 일으켜 보였도다.(권지 1장 3절)

상제께서 五월에 태인 백암리로 가실 때 김경학의 집에서 불이나서 바람을 타기 시작하여 화재가 위험하게 되니라. 상제께서 "이 불을 끄지 않으면 동리가 위태로우리라"고 말씀하시고 크게 바람을 일으켜 불을 끄시니라. 경학은 바람으로써 불을 끄는 법도 있다면서 탄복하였도다.(권지 2장 15절)

자신의 집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절박함은 어느 일보다 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능으로 불을 꺼 주는 상제에 대한 김경학의 감사와 외경심은 자연스럽게 신앙심을 형성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상제가 보인 권능은 일반적 정서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바람으로 불을 끄는

능력 잘못하면 바람에 더 큰 불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소화(消火)한 상제의 권능은 더 큰 공경의 마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와 비슷한 예로 기후의 변화를 이용해 민요를 해결한 것은 자연 현상을 임의대로 제어하는 상제의 권능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제의 권능에 대한 외경심은 또 다른 심리적 정서를 갖게 해준다. 인간적 삶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간 세상을 초월해 자연계에 까지 미치는 권능으로 인간으로 실재하며 보여주는 능력이 세상을 초극한 계까지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간들의 외경심이 절대적 차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경지가 더 피부에 느끼도록 열리게 된다.

> 갑진년 十一월에 전주에 민요가 일어나서 인심이 흉흉 하니라. 이 소란 중에 상제께서 전주에 이르셨도다. 김 보경이 상제를 배알하니 상제께서 "김 병욱이 국가의 중진에 있으니 민심의 동요를 진무하여 그 천직을 다하여야 할 일이거늘 그 방책이 어떤 것인지" 하시고 궁금히 여기시니 보경이 병욱에게 이것을 전하였느니라. 병욱은 "나의 힘으로 물 끓듯 하는 민요를 진무할 수 없으니 상제의 처분만을 바라옵니다"고 말씀드렸도다. 상제께서 보경으로부터 사정을 알아차리시고 웃으시기만 하시니라. 이날 밤에 눈비가 내리고 몹시 추워져 노영(靈營)에 모였던 민중은 내리는 눈비와 추위에 견디지 못해 해산하고 사흘동안 추위와 눈비가 계속 내리므로 민중이 다시 모이지 못하니 민요는 스스로 가라앉았도다.(행록 3장 25절)

자연의 기후 변화를 통해 관직에 있었던 김 병욱의 어려움을 해결해준 일은 군수 권직상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주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권직상이 가졌을 상제에 대한 심경은 어떠했을까. 인사로서의 한나라의 정치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제도적 일들까지도 임의 대로 주재하는 상제의 권능과 그에 대한 외경은 신앙심 형성에 초석으로 작용하는 무한의 힘을 인간에게 주는 것이다.

> 상제께서 섣달에 원평에 와 계셨을 때에 박제빈(朴齊斌)이 전라도 전주에 출두하고 군수 권직상(權稷相)이 파직될 것이란 소문이 떠돌므로 김 병욱도 전주 군장교에 있는 신분으로서 일이 어찌 될까 염려하여 상제를 찾아 뵈옵고 걱정하니 상제께서 "근심하지 말라 무사하리라"고 일러주셨도다. 며칠 후에 박 어사가 전주부에 들어섰으나 그의 면관비훈이 전주부에 내려오므로 상제의 말씀대로 일은 무사하였도다.(행록 3장 26

절)

낮과 밤을 구분짓는 것이 일월(日月)의 운행이다. 다음에서 태양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이적은 비를 내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자연현상과는 다른 심정을 인간에게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일정한 운행 규칙 속에서 움직이는 행성을 멈추었다 움직이는 광경을 목격하고 생겨나는 감회는, 태양계의 질서를 언제나 새롭게 재 편성할 수 있는 위상으로서의 상제에 대한 경외심이며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기대와 공경의 심정이라 할 수 있다.

> 상제께서 약방에 계시던 겨울 어느날 이른 아침에 해가 앞산 봉우리에 반쯤 떠오르는 것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제 난국에 제하여 태양을 멈추는 권능을 갖지 못하고 어찌 세태를 안정시킬 뜻을 품으랴. 내 이제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담배를 물에 축여서 세 대를 연달아 피우시니 떠오르던 해가 산 머리를 솟지 못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상제께서 웃으며 담뱃대를 땅에 던지시니 그제야 멈췄던 해가 솟았도다.(권지 1장 27절)

자연계(自然界)의 운행이 상제의 행적을 따라 응하는 것을 보고 인간의 경외감이 일어나게 된다. 상제를 따라 시종을 들었던 박공우의 경험은 햇무리 달무리등이 나타나면 상제가 행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박공우에게 상제의 모습이 천지자연을 주재하는 분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는 좀더 깊은 신앙심의 기저가 점차 형성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공우가 상제를 좇은 후로부터 순유에 자주 시종하였도다. 그는 어디서든지 머무시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하실 때는 밤이면 달무리, 낮이면 햇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증험하였으므로 언제든지 햇무리나 달무리만 나타나면 출입하실 줄 알고 먼저 신발과 행장을 단속하여 명을 기다리고 있노라면 반드시 불러 길을 떠나자 하셨도다. 대저 상제께서는 어디를 가시던지 미리 말씀하신 일이 없었도다.(권지 2장 4절)

이와 같은 신심 형성과 유사한 내용으로 상제의 출타에 신명이 응해 구름으로 장문(將門)이 선다는 내용이 있다.

상제께서 계신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에는 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구름 기둥이 동구(洞口) 좌우에 깃대와 같이 높이 뻗쳐서 여덟팔자형을 이루는 것을 종도들이 보고 아뢰이니 "이는 장문(將門)이라" 일러 주시니라.(권지 2장 13절)

치도령(治道領)은 도로를 다스리는 명령으로 신을 응하게 해 질거나 더러운 길을 다니기에 편한 길로 바꾸는 것이다.

상제께서 농암에 머무르시며 공사를 마치시고 그 곳을 떠나려 하실 때에 차경석이 와서 배알하고 "길이 질어서 한 걸음도 걷기 어렵나이다"고 아뢰는도다. 상제께서 양지에 "칙령도로신장 어제순창농암 이우정읍 대흥리(勅令道路神將 御在淳昌籠岩 移于井邑大興里)"라 쓰시고 물에 담궜다가 다시 끄집어내어 손으로 짜신 후에 화롯불에 사르시니라. 이때 갑자기 큰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남풍이 불더니 이튿날 땅이 굳어지는도다. 상제께서 새 신발을 신고 경석을 앞장 세우고 정읍에 가셨도다.(권지 1장 13절)

위의 예문에서 「길이 질어서 한 걸음도 걷기 어렵나이다」라고 말하는 차경석의 마음에는 길의 상태가 다니기 어렵다는 것과 함께 상제에게 사실을 알려 권능을 바라는 바램이 들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명에게 치도령(治道令)을 내리는 공사를 통해 땅을 굳게 해 다닐 수 있게 하는 상제의 권능에 차경석은 공경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치도령 공사는 공사에 따르는 글을 써서 소지시켜 도로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질은 상태의 길을 다스리기위해 먼저 비가 내려 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글이 적힌 종이를 물에 적시는 것이고, 다시 젖은 종이를 화롯불에 사르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남풍이 불어 길이 굳어지는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공사의 구조는 신비감과 함께 일련의 논리성을 갖고 종도들에게 다가가 상제에 대한 신앙심을 형성케 할 수 있다. 위의 차경석이 등장하는 치도령 공사만이 아니라 몇가지 다음의 치도령 공사가 이어져 천계대권으로 땅을 다스리는 상제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종도들과 민중들에게 높아져 가게 된다.

상제께서 언제나 출타하시려면 먼저 글을 써서 신명에게 치도령(治道令)을 내리시니라. 상제께서 계셨던 하운동은 원래 산중이라 길이 매우 좁고 험하고 수목이 우거져 길에 얽혀 있느니라. 치도령을 내리시면 여

름에는 나무에 내린 이슬을 바람이 불어 떨어뜨리고 겨울에는 진흙 길이 얼어붙기도 하고 쌓인 눈이 녹기도 하였도다.(권지 1장 9절)

상제께서 선달 어느날 종도들과 함께 동곡으로 가시는데 길이 진흙으로 심히 험하거늘 치도령을 내리시니 질던 길이 곧 굳어지니라. 마른 짚신을 신고 동곡에 가실 수 있었도다. 그 당시 쓰신 치도령은 "어제함라산하(御在咸羅山下)"의 여섯 글자인 바 상제께서 이것을 불사르셨도다.(권지 1장 12절)

천계 자연현상의 주재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치도(治道) 공사만이 아니라 삼계 대권의 주재자인 상제는 선천에서 천(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하(卑下)되었던 지계에 대한 대권을 용사해 지계 해원을 시켰으며, 각종의 지계대권을 통해 상제의 위상을 종도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였다.

상제께서 무더운 여름 날에 신방축 공사를 보시고 지기를 뽑으셨도다. 종도들이 상제께서 쓰신 많은 글을 태인 신방축의 대장간에 가서 풍굿불에 태웠나니라. 며칠 후에 상제께서 갑칠을 전주 김 병욱에게 보내여 세상의 소문을 듣고 오게 하셨도다. 갑칠이 병욱으로부터 일본 神戶에 큰 화재가 났다는 신문 보도를 듣고 돌아와서 그대로 상제께 아뢰이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일본의 지기가 강렬하므로 그 민족성이 탐욕과 침략성이 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일삼느니라. 옛적부터 우리 나라는 그들의 침해를 받아왔노라. 이제 그 지기를 뽑아야 저희의 살림이 분주하게 되어 남을 넘보는 겨를이 없으리라. 그러면 이 강산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전날 신방축 공사를 보았음은 神戶와 어음이 같음을 취함이었으니 이제 신호에 큰 불이 일어난 것은 앞으로 그 지기가 뽑힐 징조이로다"고 하셨도다.

김갑칠은 앞에서 비를 내리는 일과도 관계된 종도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그는 지계 대권을 행하는 상제의 면모를 또 경험하는 인물이 된다. 일본이라는 외국과 관련된 공사가 갑칠에게 더 큰 신비감과 경외심을 줄 수 있다. 일본 신호에 일어난 화재가 주는 공사의 의미가 한일간의 평화를 이루기위함이라는 의미에서 종도들은 상제의 세상 구원의 의지를 찾게 되고 상제의 평화애호의 뜻을 따르는 신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애호의 정신은 상제를 따르던 종도가 갖게된 잘못된 생각을 고쳐 올바른 공경심을 일으키게 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상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제의 사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됨과 상제에 대한 공경이 잘못된

것이었을 때 올바름을 일깨워주는 상제의 권능을 겪고 일어나는 마음의 뉘우침과 도덕적 심성은 인간존중(人間尊重)의 품성을 기르게 하고 상제에 대한 바른 공경심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 신 원일이 개벽공사를 빨리 행하시기를 상제께 간청하니라. 상제께서 "인사는 기회가 있으며 천시는 때가 있으니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릴 것이니 이제 기회와 천시를 억지로 쓰면 그것은 천하에 재화를 끼치게 될 뿐이며 억조의 생명을 억지로 앗아가는 일이 되리라. 어찌 차마 행할 바이냐"고 말씀하셨으되 원일이 "방금 천하가 무도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속히 이를 잔멸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주시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고 말하면서 간청하니 상제께서 심히 괴로와 하셨도다.(공사 2장 24절)

> 무신년 七월에 이르러 상제께서 원일을 이끄시고 부안 변산 우금암(遇金岩) 아래에 있는 개암사(開岩寺)에 가시니라. 그때 상제께서 원일에게 삶은 쇠머리 한개와 술 한 병과 청수 한 그릇을 방안에 차리고 쇠머리를 청수 앞에 진설하게 하신 후에 원일을 그 앞에 꿇어앉히고 성냥 세 개비를 그 청수에 넣으시니라. 이때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일하는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이제 청수 한 동이에 성냥 한 갑을 넣으면 천지가 수국(水國)이 될지니라. 개벽이란 이렇게 쉬우니 그리 알지어다. 만일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쓰면 재해만 끼칠 뿐이니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고 일러주시고 진설케 하신 것을 모두 거두니 곧 풍우가 그쳤도다. 상제께서 원일을 곧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도다. 원일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 자기 동생의 집이 폭우에 파괴되고 그 가족은 원일의 집에 피난하였도다. 원래 원일의 아우는 상제를 믿지 아니 하였으며 언제나 불평을 품었도다. 그러나 그는 이일을 당한 후부터 두려워서 무리한 언사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였도다.(공사 2장 27,28절)

위의 개벽과 관련된 한 종도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된 일련의 일화는 종도들에게 개인적 욕심을 버리고 인류애의 정신이 있어야 됨을 강조한 것이다. 상제를 따르는 신앙이 올바로 열려야됨을 보인 것이다.

일상의 삶속에서 땅은 민중들의 생계의 터전이며, 풍수와 관련해 중요한 자리이다. 상제는 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풍수의 이치를 가르쳤다.

> 상제께서 어느날 공우를 데리시고 태인 보림면 장자동을 지나는 길가에서 묘(墓)를 보시고 공우에게 이르시니라. "이 혈(穴)은 와우형(臥牛形)이나 금혈형(琴穴形)이라고 불리우니라. 그것은 형명을 잘못 지어서 발음(發蔭)이 잘못 되었느니라. 어디든지 혈명을 모르거든 용미(龍尾)없이

조분(造墳)하였다가 명사에게 혈명을 지은 뒤에 용미를 달면 발음이 되나니라" 하셨도다.(행록 4장 9절)

땅의 혈음을 공사에 이용하기위해 차경석 선묘의 금반사치 혈음을 옮겨온 일은 상제의 사상이 일상의 민중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례와 관련 장지가 의혈이라하여 김덕찬에게 보인 관심도 땅의 상태를 내다보는 권능과 함께 민중의 일상 정서에 가까이 있는 상제의 모습을 비친 것이다. 이를통해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상제에 대한 친화와 경배가 이룩될 수 있는 신앙의 틀이 만들어 졌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상제께서 그 후 경석에게 "너의 선묘인 구월산(九月山) 금반사치(金盤死雉)의 혈음(穴蔭)을 옮겨와야 되리라"고 명하시고 공우에게 북을 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이 혈음은 반드시 장풍(長風)을 받아야 발하리라" 하셨도다. 이 때 이도삼(李 道三)의 아우 장풍(長豊)이 문득 들어오거늘 공우가 북채를 잠깐 멈추고 "장풍이 오느냐"고 인사를 하는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이제 그만 그치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 3장 41절)

갑진년에 김덕찬이 모친상을 입고 장례를 지내려고 전주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용두치(龍頭峙) 주막에서 상제를 배알하니 가라사대 "오늘 장사는 못지내리니 파의하라" 하시니라. 덕찬이 이를 듣지 않고 돌아가서 장례를 그대로 행하여 지정한 땅을 파니 큰 의혈(i蟻穴)이니라. 다시 다른 곳을 파니 그곳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제서야 상제께서 가르치심의 어김을 뉘우치고 부득히 토룡(土壟)을 하였도다.(권지 1장 30절)

이러한 지계 권능으로 상제는 지리와 지기를 따라 땅의 정기와 혈을 도수에 맞춰 사용하였다. 비인복종혈과 금반사치혈등을 소정의 공사에 사용하는 일을 통해 땅을 소중히 여기는 민중 의식에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경심을 또한 자아내게 하였다.

또 상제께서 양지와 백지와 장지를 각각 준비하여 놓으시고 가라사대 "비인복종(庇仁覆鍾)이 크다 하므로 북도수를 보노라. 북은 채가 있어야 하나니 수저가 북채라. 행군할 때 이 수저로 북채를 하여야 녹이 진진하여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양지와 백지와 장지를 각각 조각조각 찢으시고 조각마다 글을 써서 단지에 넣고 그 단지 입을 잘 봉하여 깨끗한 곳에 묻으셨도다.

이러한 일련의 지계 대권은 일상의 삶속에 민중과 같이 숨을 쉬는 땅에

대한 해원과 해원에 지기(地氣)의 영향이 중요함을 보임으로써 상제 사상에 대한 더 큰 호응과 접근을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이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 (교법 1장 62절)

>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 하였으니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교법 1장 67절)

해원관련 지계대권(地界大權)에서는 지리(地理)와 관련 지기(地氣) 통일등을 이루어 나가는 상제의 권능이 보인다. 지기통일 공사는 인계의 반목쟁투로 나타난 원을 없애고 나아가 삼계를 개벽(開闢)해 동학의 실패와 제국주의 세력의 침투 그리고 내부 정치의 혼란 등으로 방황하는 민중의 소망인 선경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이며 신앙적 메시지가 새세상에 대한 동경심을 형성케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공사 3장 5절)

지기통일을 위해 조선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활에 가족의 개념과 통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는 산을 택해 부모산의 정기를 뽑고 산하대운을 거두어 강산정기를 통일시켜 보편적 질서를 느끼게하는 종교심(宗敎心)을 상제는 보여 주었다. 부모산(父母山)이라는 친근한 땅의 이미지 생활의 터전이며 생명의 본향인 자연도 부모로 귀착된다는 인간과 땅의 상합적 질서를 느끼게 해준다.

>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부모산(父母山)의정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모악산(母岳山)과 순창(淳昌) 회문산(回文山)이니라. 회문산에 이십 사혈이 있고 그 중에 오선위기형(五仙圍碁形)이 있고 기변(碁變)은 당요(唐堯)가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네 명당(明堂)의 정기를 종합하여야 하니라. 네 명당은 순창회문산(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형과 무안 승달산(務安 僧達山)의 호승예불형(胡僧禮佛形)과 장성 손룡(長城 巽龍)의 선녀지금형(仙女織錦形)과 태인 배례전(泰仁 拜禮田)의 군신봉조형(群臣奉詔形)이니라. 그리고 부안 변산에 이십사(二十四) 혈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의 상대가 되면 해변에 있어 해왕(海王)의도수에 응하느니라. 회문산은 산군(山君),변산은 해왕(海王)이니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 상제께서 여름 어느날에 황 응종의 집에서 산하의 대운을 거둬들이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상제께서 밤에 이르러 백지로 고깔을 만들어 응종에게 씌우고 "자루에 든 벼를 끄집어 내서 사방에 뿌리고 백지 백 이십장과 양지 넉장에 글을 써서 식혜 속에 넣고 인적이 없을 때를 기다려 시궁 흙에 파묻은 후에 고깔을 쓴 그대로 세수하라"고 명하시니 그는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별안간 인당에 콩알과 같은 사마귀가 생겼도다. 응종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벼를 뿌린 것을 보았으나 한 알도 보이지 않고 없어졌도다.(공사 3장 6,7절)

Ⅳ. 人界大權과 畏敬

상제의 천지에 대한 권능을 겪고 생긴 공경이 다양한 인간사의 일들에서도 있게 된다. 이것은 병, 화난등의 인간고통을 해결해주는 면과 새로운 도수로 동서양 질서와 인간사회 조직기구등을 만드는 내용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인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내용은 생민의 생활구제, 인사(人事)의 각종 갈등의 해소, 병으로부터의 제생(濟生)등이 대표적이다. 또 새로운 질서의 확립은 무너진 상도의 회복을 통한 유도(有道)의 정착과 후천선경의 건설로 나타난다.

다음 내용은 상제에 대해 일상사에서 가질 수 있는 공경심을 몇가지 실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원의 주재자로서의 외경의 마음은 종교심을 유발하고 일상에서의 안정과 삶에의 가치를 다시 세우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생계인 채소 농사가 가뭄으로 망치게 된 상황에 처해 비를 내려 구제해주는 일을 보고 김성천이 상제에 대해 가진 마음이다.

계묘년 가을에 가뭄이 동곡(銅谷)에 계속되었도다. 김성천(金成天)은 동곡에서 밭을 부쳐 업으로 삼으니라. 그 나물밭에 가뭄 때문에 뜨물이 생

겨 채소가 전멸케 되었는지라. 상제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죽을 사람에게 기운을 붙여 회생케 하는 것이 이 채소를 소생케 하는 것과 같으니라" 하시고 곧 비를 내리게 하셨도다. 그 후에 상제께서 출타하셨다가 얼마 후에 돌아오셔서 자현에게 "김 성천의 나물밭이 어떻게 외었느냐"고 물으시니라. 자현이 "지난 비로 소생되어 이 부근에서는 제일 잘 되었나이다"고 대답하였도다. "사람의 일도 이와 같아서 병든 자와 죽는 자에게 기운만 붙이면 일어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 2장 22절)

조선조 말기 봉건체제하의 국가의 수탈로 가중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일상에 바쁜 생활속에서 생업(生業)을 잠시 접어 두고 상제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안필성(安弼成)이 못자리를 하려고 볍씨를 지고 집을 나서려는데 상제를 뵈였도다. 상제께서 "쉬었다 술이나 마시고 가라"고 말씀하셨으되 필성이 사양하는지라. "못자리를 내기에 바쁜 보양이니 내가 대신 못자리를 부어주리라" 하시고 지게 위에 있는 씨나락 서너말을 망개장이 밭에 다 부으셨도다. 그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못하고 앉아서 주시는 술을 마시면서도 근심하였도다. 주모가 들어와서 씨나락은 가지고 온 그릇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알리는도다. 필성은 이상히 여겨 바깥에 나가 뿌려서 흩어졌던 씨나락이 한 알도 땅에 없고 그대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전보다 한층 더 상제를 경대하는도다.(행록 2장 24절)

그것도 농번기에 쉬었다 술이나 먹고 가라는 말씀에 대해 안필성이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씨나락을 밭에 뜻없이 뿌리는 상제에 대해 근심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안필성의 심정은 당시 사회의 어려움속에서 당장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경제적 문제의 고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제에 의해 뿌려졌던 씨나락이 다시 모여져 있는 불가사의한 상황하에서 상제의 말씀과 권능에 대한 안필성의 심경은 절대적 힘에 대한 경건(敬虔)한 복종으로 바뀌어 다음과 같은 친근감과 신앙심에 이르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보인다.

안 필성이 상제를 모시기를 기뻐하여 종종 음식을 대접하였도다. 어느날 그가 동곡(銅谷) 앞 팥거리에서 상제를 만나 대접하려고 하는지라. 상제께서 그 뜻을 알아차리시고 "내가 반찬을 마련하리라" 하시고 못을 휘어서 낚시를 만들어 팥거리 근처에 있는 작은 웅덩이에 던지시니 잉어와 가물치가 걸렸도다. 이것으로써 반찬을 만들어 잡수시면서 필성과 함

께 한 때를 보내셨도다.(행록 4장 2절)

당시 민중들의 삶은 농사의 풍흉에 따라 희비가 달라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상제는 각종 일기변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대권을 통해 인계 생민의 생활을 구제해 주었다. 이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신앙심의 일단을 마음에 둘 수 있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생민의 삶을 구제해주는 상제의 권능은 농사만이 아니라 상업에 종사하는 민중들에게도 베풀어졌다.

백남신의 친족인 백용안이 관부로부터 술도매의 경영권을 얻으므로써 전주 부중에 있는 수백개의 작은 주막이 폐지하게 되니라. 이 때 상제께서 용두치 김주보의 주막에서 그의 처가 가슴을 치면서 "다른 벌이는 없고 겨우 술장사하여 여러 식구가 살아왔는데 이제 이것마저 폐지되니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통곡하는 울분의 소리를 듣고 가엾게 여겨 종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 남장군만 있으랴. 여장군도 있도다." 하시고 종이에 여장군이라 써서 불사르시니 그 아내가 갑자기 기운을 얻고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지르는도다. 순식간에 주모들이 모여 백용안의 집을 급습하니 형세가 험악하게 되니라. 이에 당황한 나머지 그는 주모들 앞에서 사과하고 도매 주점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니 주모들이 흩어졌도다. 용안은 곧 주점을 그만 두었도다.(권지 1장 17절)

위글은 소지(燒紙)로써 생민의 고통을 해결한 것으로 보수와 혁신의 대립속에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문물의 유입에 의한 경제 환경의 변화로 신분적 변동과 갈등하에서 당시의 문제를 극복한 내용이다. 김주보의 처가 처한 입장은 변화하는 경제 질서하에서 기존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아픔을 가엾이 여겨 구제해 주는 상제 여기에는 여장군(女將軍)이라 하여 여성에 대한 평등과 신분상승의 의식까지 내포되어 있다. 김주보의 처가 현실을 통곡하며 표출하는 행동으로 생활의 터전을 다시 찾게 된다. 이것이 상제의 기운을 붙이는 공사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모들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공경의 정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겪게 되는 신비로운 구제 체험은 생활고의 아픔과 좌절로부터의 탈피를 경험하고 일어나는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다.

이날 밤에 객망리 앞 달천리에 별안간 우뢰같은 요란한 소리가 나자 못

東八의 집이 무너졌도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니라. 그후 얼마지나 그가 무너진 집의 재목을 모아가지고 집을 세우기를 여러번 되풀이 하였으되 그때마다 집이 무너지는도다. 그는 부득히 술집을 거두고 움막을 치고 농사로 업을 바꿨느니라. 농사로 살아오던 어느날에 면이 없는 사람이 와서 움막살이의 참상을 보고 손수 집을 한나절만에 세우고 흔적없이 그대로 돌아가는지라. 사람들은 수십일 걸릴 일을 하루도 못 되게 완성한 것에 크게 놀랐도다. 사람들은 이것이 상제께서 측은히 여기사 신장을 보내신 덕이라 믿고 더욱 상제를 좇는도다.(행록 1장 35절)

이전에 이 부부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자 과거 그들이 어려웠을 때를 망각하고, 몰인정하게 장사하며 상제와 종도들을 무시해왔던 터이므로 재생에 대한 뇌우침과 마음으로부터의 감회는 더 깊고 극진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상제께서 몇 달동안 객망리 앞 주막에서 천지공사를 행하시니 종도가 많아지니라. 그 덕에 주막집 주인 吳東八이 돈을 모았는데 그후 상제께서 비용이 떨어진 것을 알고 배척하는지라. 모든 종도가 그 주인의 무례에 노하니 상제께서 종도들의 언행을 억제하고 "무식한 사람이 어찌 예절을 알겠느뇨. 내가 무례에 성을 내면 신명이 그에게 큰 화를 줄 것이니 대인의 과차에 큰 덕을 베풀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끼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리오"하고 타이르셨도다.(교법 1장 17절)

오동팔 부부는 자신들이 돈을 벌게되자 무시한 상제가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준 것에 대해 보은(報恩)의 심정은 더 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은 오동팔 부부가 상제의 은혜를 무례로 갚아도 포용을 보이는 상제에 대한 공경을 더 깊이 하였을 것이다.

인간의 무병장수(無病長壽)의 소망은 고래로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인간의 전생(前生)을 밝히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일을 당하여 상제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후 어느날 금곡이 상제를 정중하게 시좌하더니 상제께 저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였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대는 전생이 月光大師인 바 그 후신으로서 대원사에 오게 되었느니라. 그대가 할 일은 이 절을 중수하는 것이고 내가 그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리니 九十세가 넘어서 입적하리라" 하시니라.(행록 2장 13절)

생사를 주재하는 대상에 대한 심경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근원의 신앙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로 작용해 초월적 존재를 만난 극적인 공경심(恭敬心)을 불러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수명(壽命)에 있어 그릇된 욕망에 빠져 상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인간이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상제의 예견이 나타나고, 죽음과 관련 상제의 권능으로 생을 얻을 수 있었던 환자가 상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후회와 아쉬움은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더욱 더 강한 공경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도 생각할 수 있다.

> 처음부터 永學은 도술을 배우기를 원했으나 상제께서는 그것을 원치 말고 대학을 읽으라 하셨는 데도 명을 어기고 술서를 공부하기에 詩를 보내어 깨닫게 했으나 상제의 말씀을 듣지 않더니 기어코 영학이 죽게 되었니라. 상제께서 내림하셔서 영학의 입에 엄지손가락을 대시고 "이 손가락을 떼면 곧 죽을 것이니 뜻에 있는 데로 유언하라" 하시니 영학이 부모에게 할 말을 모두 마친 후에 엄지손가락을 떼시니 곧 사망하니라. (권지 1장 29절)

> 상제께서 구릿골을 떠나 益山에 이르시고 그 곳에서 월여를 보내시다가 다시 會仙洞에 이르시니라. 이 곳에 金 甫京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 외당에 상제께서 계셨도다. 이 때 그는 모친의 위독함을 상제께 아뢰니라. 이를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오늘 밤은 冥府使者가 병실에 침입하여 나의 사자의 빈틈을 타서 환자를 해할 것이니 병실을 비우지 말고 꼭 한 사람이 방을 지키면서 밤을 새우라> 하시니라. 보경이 이르심을 좇아 가족 한 사람씩 교대로 잠자지 않고 밤을 새우기로 하고 가족들을 단속하였느니라. 여러날이 계속되매 식구들이 졸음에 못이겨 상제의 이르심을 잊어 갔도다. 이날 밤 보경이 깨어 방을 지키다가 깜박 잠에 빠졌던 바 이 때 상제께서 외당에서 급히 소리쳐 부르시니라. 그가 놀라 깨어 보니 벌써 모친은 운명하여 있었도다. 상제께서 말씀하신 나의 사자는 바로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을 가리키신 것이로되 식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행록 1장 34절)

인간이 죽음의 지경에서 살아난 경험을 하였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할 것인가는 형언할 수 없는 차원이다. 사지(死地)에서 살아난 자의 살려준 존재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심정을 보게 된다.

오월이 되어 상제께서 본댁을 떠나셨으나 가신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도다. 그리하여 매우 염려하는 상제의 부친을 보고 유덕안(兪德安)은 대신하여 상제를 찾으려고 의관을 갖추고 객망리를 떠났도다. 그가 태인(泰仁) 강심리에 이르렀을 때 관군은 의병 두 사람을 잡고 덕안을 동학군으로 몰고 포박하여 전주 용머리 고개 입시 형장으로 끌고 가니라. 두 사람이 먼저 참형되고 덕안의 차례가 되었을 찰나에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천둥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비가 억수같이 쏟아니는지라. 관군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하였으나 비바람은 그치지 않고 밤은 깊어 사방이 보이지 않아 덕안이 정신을 차리니 두 사람의 시체만이 짙은 어둠 속에 뒹굴어 있었도다. 무서움에 쫓겨 그는 먼 곳에서 비치는 등불을 향하여 지친 몸을 이끌어가니 날이 새기 시작하니라. 등불은 간데 온데 없는 산중이었도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포박을 풀고 재생의 기쁨을 안고 집에 돌아왔느니라. 그는 이 재생의 인도를 호랑이가 불빛을 비쳐 준 것으로 믿었도다. 얼마후 상제께서 객망리에 홀연히 돌아오셨도다. 상제께서 덕안을 보시고 <험한 시국에 위급한 환경을 당하여 고통이 많았도다> 말씀하며 위로 하시니 그는 더욱 자신의 재생을 상제의 덕화라고 굳게 믿으며 재생의 감격을 되새기니라. 당시는 가릴사이 없이 마구 죽이는 판국이었도다.(행록 1장 26절)

죽을 상황에서 신이(神異)로운 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 살아난 유덕안에게 그가 겪은 일을 알고 말씀하시는 상제는 생명의 은인이며 자연 현상을 임의대로 조절해 어느 곳에 있더라도 화난(禍難)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경외의 대상이다. 호랑이가 집근처까지 인도해 살아난 것으로 믿는 마음에서 절대적 존재의 초자연적 힘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의 경우에서 하늘의 좀성이라는 별의 작용으로 여자가 범에 물려 간 사실에 의아심이 생길 수 있다. 그 좀성을 향해 호통치는 상제의 모습에서 신비감과 함께 의문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자가 무사히 돌아온 일에서 인간은 자신의 구원도 상제안에 있을 때 찾을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도삼은 호랑이가 여자를 물고 간 것이 좀성의 작용임과 행성들을 상제가 주재 관장하고 있으며 별을 제재해 죽음에 처한 생명을 구원해준 상제에 대해 초월적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여름에 정읍의 버들리에서 젊은 여자가 범에게 물려 갔는데 이도삼이 정읍 수통목에 계시는 상제를 찾아 뵈옵고 그 일을 아뢰니라. 상제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공우에게 "하늘에 좀성이 나타났는가 보라" 하시니 공우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나타나 있음을 아뢰니 상제께서 베고 계

> 시던 목침으로 마룻장을 치시며 "좀성아, 어찌 무고히 사람을 해하느뇨" 고 꾸짖으셨도다. 이튿날에 그 여자가 몸에 조금만한 상처만을 입고 살아 돌아왔느니라.(권지 2장 18절)

사람의 죽음을 예견하는 상제의 말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욕설과 구타를 행하는 순검에 대해 당당한 상제의 태도, 상제를 난타한 순검이 다시 사과하자 그를 위해 피난할 길을 알려주는 상제의 모습에 순검은 목숨을 건지고 감사와 뉘우침속에 경대의 마음을 보이고 신앙심을 갖게 된다.

> 화적(불안당)이 갑진(甲辰)년에 대낮에도 횡행하였도다. 이해 二월에 상제께서 갑칠(甲七)을 데리시고 부안(扶安) 고부(古阜) 거문바위 주막에 이르시니 그 주막에 화적을 잡기 위해 변복한 순검 한 사람이 야순하다가 쉬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모에게 "저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니 주식을 주지말라. 주식을 주었다가 죽으면 대금을 받지 못하니 손해가 아니냐"고 일러주시니라. 이 말씀을 그 순검이 듣고 몹시 분격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상제를 구타하니라. 그래도 상제께서 웃으시면서 "죽을 사람으로부터 맞았다 하여 무엇이 아프리오" 말씀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셨도다. 주모가 그에게 "저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인이시니 따라가서 사과하고 연고를 물어보시라"고 말하는지라. 가라사대 "오늘밤에 순시를 피하고 다른 곳으로 빨리 가라"하시니 순검은 명을 좇아 곧 다른 곳으로 옮겨가니라. 얼마 후에 화적 여럿이 몰려 와서 주모를 난타하며 순검의 거처를 대라고 졸랐도다. 화적들은 순검을 죽이려고 미리 작정하고 습격한 것이어서 이튿날 그 순검이 상제께 배알하고 재생의 은혜에 흐느껴 울었도다.(행록 3장 10절)

다음의 내용은 늘 상제를 지켜주는 신적 존재들을 생각하게 해준다. 상제에게 불의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벌이 가해지는 신비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 상제께서 정해(丁亥)년 어느날 외가에 행하셨도다. 어떤 술 주정꾼이 까닭없이 상제께 욕설을 퍼붓도다. 그러나 상제께서 아무 대항도 하지 아니하시니 난데없이 큰 돌 절구통이 떠 와서 그의 머리 위를 덮어씌우니 그는 절구통 속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니 상제께서 몸을 돌리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도다.(행록 1장 18절)

혼란한 시대상속에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상제의 모습은 올바른 세계를 꿈꾸는 종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유토피아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상제께서 송광사(松廣寺)에 계실 때 중들이 상제를 무례하게 대하므로 상제께서 꾸짖으시기를 <산속에 모여 있는 이 요망한 무리들이 불법을 빙자하고 혹세무민하여 세간에 해독만 끼치고 있는 이 소굴을 뜯어버리리라> 하시고 법당 기둥을 잡아당기시니 한자나 물러나니 그제야 온 중들이 달려와서 백배 사죄하였도다. 그 뒤에 물러난 법당 기둥을 원상대로 회복하려고 여러번 수리하였으되 그 기둥은 꼼짝하지 않더라고 전하는도다.(행록 1장 9절)

당시 동학군이 봉기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혼란한 현실에서도 종도들에게 앞을 내다보며 동학군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 상제를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제의 말대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상제의 예지에 대해 외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전봉준(全 琫準)이 학정(虐政)에 분개하여 동학도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후 더욱 세태는 흉동하여져 그들의 분노가 충천하여 그 기세는 날로 심해져가고 있었도다. 이 때에 상제께서 그 동학군들의 전도가 불리함을 알으시고 여름 어느날 <월흑안비고 선우야둔도 욕장경기축 대설만궁도(月黑雁飛高 單于夜遁逃 欲將輕騎逐 大雪滿弓刀)>의 글을 여러 사람에게 외워주시며 동학군이 눈이 내릴 시기에 이르러 실패할 것을 밝히시고 여러 사람에게 동학에 들지 말라고 권유하셨느니라. 과연 이 해 겨울에 동학군이 관군에게 패멸되고 상제의 말씀을 좇은 사람은 화를 면하였도다.(행록 1장 23절)

꿈을 통해 보았던 신계의 절대적 존재에 대한 만남이 현실에서 다시 일어난 상황에 대해 갖게되는 감회는 어떠할까.

금구 내주동을 떠나신 상제께서는 익산군 이리(裡里)를 거쳐 다음날 김일부(金 一夫)를 만나셨도다. 그는 당시 영가무도(詠歌舞蹈)의 교법을 문도에게 펼치고 있던 중 어느날 일부가 꿈을 꾸었도다.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일부에게 姜 士玉과 함께 玉京에 오르라는 天尊의 명하심을 전달하는도다. 그는 사자를 따라 사옥과 함께 옥경에 올라가니라. 사자는 높이 솟은 주루금궐 요운전(曜雲殿)에 그들을 안내하고 천존을 배알하게 하는도다. 천존이 상제께 광구천하의 뜻을 상찬하고 극진히 우대하는도다. 일부는 이 꿈을 꾸고 이상하게 생가하던 중 돌연히 상제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었도다. 일부는 상제께 요운(曜雲)이란 호를 드리고 공경하였도다.(행록 2장 2절)

꿈은 그저 가상의 무의식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것인데 그러한 상식을

초탈한 일이 나타난 것에 대해 일부는 그가 꿈에서 보았던 궁전의 이름을 호로 써서 올린다.

이것은 꿈이라는 인간의 정신작용속에도 상제의 권능이 용사되고 있고 인간의 심리적 움직임까지도 인지해 내는 상제의 위상을 보여준다. 개인의 꿈을 통해 신계를 보여주거나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경우에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는, 현실의 세상이 신의 세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며 한편으로 죽음과 미래를 보는 시각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

> 상제께서 신경수의 집에서 공사를 보시고 계실 때 시좌하고 있던 원일에게 "네가 동천에 붉은 옷을 입고 구름 속에 앉은 사람에게 네 번 절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있느냐"고 회상을 촉구하시더니 원일이 문득 깨닫고 일어나 상제께 네번 절하니 옆에 앉아있던 종도들이 까닭을 모르고 물으니라. 그는 옷깃을 다시 여미고 정중히 앉아 이야기하되 "수년전에 갑자기 병이 들어 사경에 빠져 정신이 황홀하여지는데 어떤 사람이 사인교를 타고 가다가 나를 보고 네가 새 옷으로 갈아 입고 문밖에 나가서 동쪽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속에 붉은 옷을 입은 분이 앉아 계시리니 그 분에게 절을 사배하라. 그러면 너의 병이 나으리라고 이르기레 그대로 행하였더니 병이 곧 나았다."고 하니라.(권지 2장 28절)

> 종도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신경수의 집에 머물었느니라. 공우는 밤에 잠자리에서 사람 수십명이 빛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상제가 계시는 문 밖의 뜰에서 배례하느니라. 이에 놀라서 공우는 상제의 등 뒤에 숨었도다. 아침에 상제께서 꿈이야기를 물으시거늘 공우가 그대로 아뢰니 다시 가라사대 "그들이 천상벽악사자(天上霹惡使者)이니라" 하셨도다.(권지 2장 3절)

화해(和解)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상제의 공사에서 평화를 이룩하려는 마음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심리는 어렵고 혼란한 시대상황속에서 새로운 믿음과 희망을 심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봉건적 규율의 붕괴와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속에서 나타난 갈등은 민족 내부에 일진회와 아전의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에서 상제가 보인 화해와 평화의 종교적 노력은 민중들에게 외경과 숭배의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 일진회와 아전의 교쟁이 전주에서 갑진년 七월에 있었도다. 최창권(崔

昌權)이란 사람이 부내의 아전을 모아 일진회 타도의 의병을 일으키고자 각군 각면으로 통문을 보냈도다. 상제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어렵게 살아난 것이 또 죽겠으니 그들을 내가 제생하리라." 상제께서 화정리의 李 京五를 찾아 돈 칠십냥을 청구하시니 그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도다. 부득히 다른 곳에서 돈 일곱냥을 구하여 가지시고 "이 돈이 능히 칠십냥을 대신하리라" 말씀하셨도다. 상제께서 형렬을 대동하시고 용머리 주막에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을 청하여 술을 권하여 나누시고 난 후에 종이에 글을 쓰고 그 종이를 여러 쪽으로 찢어 노끈을 꼬아서 그 주막의 문 돌쩌귀와 문고리에 연결하여 두시니라. 그날 오후에 아전과 일진회원 사이에 화해가 이룩되니 일진회원들이 사문을 열고 입성하니라. 이 일에 상제께서 소비하신 돈이 엿냥이었도다. 가라사대 "고인은 바둑 한 점으로써 군병 백만명을 물리친다 하나 나는 돈 엿냥으로써 아전과 일진회의 싸움을 말렸느니라" 하셨도다.

미래사를 내다보고 인간 개개인의 마음까지도 다 통찰하는 존재에 대한 속일 수 없는 심정에서 인간은 진심을 간직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따라 일어나는 외경심은 도덕적 심성과 함께 새로운 자기 각성의 기회를 열어 주게 될 것이다.

박공우가 한때 일진회의 한 간부였으나 상제를 따른 후의 어느날 가만히 일진회 사무소에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상제께서 문득 공우에게 이르시기를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몸이 찢어지리니 주의하라" 하시기에 공우는 놀라며 일진회와의 관계를 아주 끊고 숨기는 일을 하지 않으니라.(권지 1장 19절)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실 때나 어느 곳을 정하고 머무실 때에 반드시 종도들에게 정심할 것을 이르셨도다. 방심하는 자에게 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이 일깨우고 때로는 상제께서 주무시는 틈을 타서 방심하는 자에게 마음을 통찰하신 듯이 깨우쳐 주고 방심을 거두게 하시니라.(권지 2장 22절)

개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차원에서 자신의 방문을 알고 맞이하는 상제를 접하며 류서구는 경송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방문하는 그에게 일전의 대접을 얘기하며 주효를 준비한 상제의 예지에 대한 놀라움이 일어나고 상제에 대한 공경과 흠모의 정서가 솟아나게 됨을 생각할 수 있다.

류서구는 상제의 부친과 친분이 있는 분으로서 상제의 예지(豫智)에 크게 놀라 상제를 경송하게 되었도다. 상제께서 그의 내왕을 언제나 미리

> 아시고 주효를 준비한 사실을 부친이 서구에게 알렸으되 그가 믿지 않았도다. 임인년 정월 七일에 상제께서 그가 다시 오는 것을 마당에서 맞으면서 "세전에 공사가 있어 오신 것을 대접하지 못하여 부친에 대한 예가 안 되었나이다"고 말씀하시고 아우 영학으로 하여금 책력의 틈에 끼어 둔 종이 쪽지를 가져오게 하여 펼쳐 보이시니 "인일에 인간방에서 사람이 오는데 마당에서 만나게 되니 그는 꼭 류서구였도다(寅日人來寅艮方 逢場必是柳瑞九)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도다. 이에 류서구는 놀라 그후 상제를 경송하게 된 것이니라.(권지 1장 1절)

상제의 권능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정신작용에대한 것만이 아니라 세계정세와 관련된 면으로도 발현된다. 인계의 새로운 질서의 확립은 해원상생, 보은상생에 입각 과거사의 원을 풀고 세계질서에 상도(常道)를 회복해 지상천국(地上天國)의 세계를 구현하는 권능의 용사로 이루어진다.

조선 중심의 국수주의적 세계관이 아닌 일본과의 과거사와 현재의 공사를 논하는 일에서 세계사상으로서의 상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갖는 인간의 심정은 상제의 천지공사가 당시 격동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조선이 가야될 길을 현명하게 찾게 하는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침략적 정책과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급류속에서 국가의 안위를 내다보고 살길을 열어주는 아래의 내용들은 국가적 존망에 처해 있는 조선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상제에 대한 추종과 공경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 "이제 동양 형세가 위급함이 누란과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영원히 서양에 넘어가리라" 깊이 우려하시사 종도들에게 계묘년 여름에 "내가 일로전쟁(日露戰爭)을 붙여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리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23절)

> "이제 서양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대신문(大神門)을 열어 사십 구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남풍을 불어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으리라."(예시 24절)

바람을 불어 일으키는 일은 이미 천계대권(天界大權)에서 보았던 경우이다. 동양과 서양을 대비해 볼 때 당시의 현실은 서양의 열강과 문호 개방으로 이미 경제적 우위에 서 있던 일본이 발달된 문물과 침략무기로 약소국가

와 한반도를 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던 시시였다. 일본과 러시아의 싸움에서 일본을 도왔다는 일화는 상제의 예지와 과거사와 관련 해원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이루기위함이다.

> 상제께서 김 병욱에게 "이제 국세가 날로 기울어 정부는 매사를 외국인에게 의지하게 됨에 따라 당파가 분립하여 주의 주장을 달리하고 또는 일본과 친선을 맺고 또는 노국에 접근하니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고 물으시니 그가 "인종의 차별과 동서의 구별로 인하여 일본과 친함이 옳을까 하나이다"고 상제께 대답하니 상제께서 "그대의 말이 과연 옳도다" 하시고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자 신명공사를 행하셨도다.(행록 1장 12절)

> 상제께서 어느날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일시천하통일지기 (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 주노니 잘 지킬지어다"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 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도다.(공사 2장 4절)

> 상제께서 계묘년에 종도 김형렬과 그외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보내어 역사를 일으키리니 이 뒤로는 외인들이 주인이 없는 빈집 들듯 하리라. 그러나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의 일을 제가 다시 주장하리라."(예시 25절)

김병욱이 상제의 질문에 답한 것은 당시 현실을 냉철히 인식한 지방 관리의 솔직한 심경일 수 있다. 조정이 무능하여 국가를 운영해 나갈 능력이 없어진 상황하에서 식민지 지배에 나선 서구열강과 일본에 불행히도 조선이 그들의 세력하에 넘어간다면 그 악영향과 피해가 훗날 심각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김병욱은 아픈 마음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위의 일은 어떻게 보면 민중들에게 많은 고통과 슬픔을 만들 수 있지만 거시적 안목에서 조망을 해 본다면 인류사회의 안녕과 조선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음의 내용에서 간파할 수 있다.

> 또 지난 임진 왜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세가지의 한만 맺었으니 소위 삼한당(三恨堂)이니라.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一한이요.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되었음이 二한이오. 세째는 모 심는 법을 가르쳤음이 三한이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저들이 먼저 서울에 무난히 들어오게 됨으로써 一한이 풀리고, 다음 인명을 많이 살해하지 아니 함으로써 二한이 풀리고, 세째로는 고한삼년(枯旱三年)으로 백지강산(白地江山)이 되어 민무추수(民無秋收)하게 됨으로써 삼한(三恨)이 풀리리라.(예시 74절)

일본과의 임진란을 배경으로 한 과거사를 밝히고 조선의 당시 현실속에서 대비적으로 과거의 해원을 이룬다는 내용은 역사적 안목에서 상제 사상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 큰 설득력을 얻는다. 초월적 지혜가 논리적 예시로 바뀌어 반향감도 일으킬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더욱 깊은 종교심을 만들게 된다. 현실적 상황과 미래적 시점에서 상제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 공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신앙적 경외심을 형성시킬 수 있다.

V. 結論

이글은 『전경(典經)』에 나타나는 상제의 권능과 그에 따르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외경심을 살펴보고 그것이 상제에 대한 신앙심과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찾아 본 것이다.

상제의 초월성은 신도(神道)의 원리하에 나타난 권능의 발현이다. 상제는 신도에 따라 삼계대권(三界大權)을 발휘하여 천지공사를 이루어 나갔으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생민들을 구제하였다. 상제를 따르던 종도들과 일반 민중들은 상제의 삼계대권으로 표현된 초월성을 보고 느끼며 그들의 외경심(畏敬心)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외경심은 신조(信條)의 삼요체(三要諦)에 속하는 경(敬)에 있어 신앙심 형성과 수행에 일련의 규범적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상제의 초월성은 자연현상을 조절하는 면으로 나타나 비, 뇌성, 바람, 태양 등을 임의대로 다루었는데 이를 목격한 종도의 마음에는 외경심과 그에 따른 신앙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신앙심은 다양한 인간사의 일들을 주재 관장하는 상제의 권능을 접하며 민중들에게 형성되어 그들이 상제를 추

종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상사에서 나타난 상제의 권능이 인간적 차원에서는 외경의 대상이었고 신앙의 기틀은 이러한 신비감에서 뿌리깊게 당시 조선 사회에 퍼져나갔던 것이다.

大巡思想 學術院 Daesoon Thoughts Institute
DAEJIN
SINCE 1996

【참고문헌】

高南植(1992),「先天現實과 天地公事論」,『大巡論集』제1집, 大巡眞理會 敎務部

---------(1999), 「有道의 확립과 安의 意味-安心安身의 安과 관련하여-」, 『大巡思想論叢』제7집, 大巡思想學術院

琴章泰(1993 3판), 『韓國實學思想硏究』서울: 集文堂

김충열(1996,초판4쇄),「천인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기조」『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盧吉明(1994, 改正增補版),「神과人間의원한을 抹消한다」『韓國思想의 深層』, 서울: 宇石

大巡眞理會 敎務部(1969),『大巡眞理會 要覽』,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大巡眞理會 敎務部(1974),『典經』,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大巡宗學敎材硏究會(1998),『大巡思想의 理解』, 京畿道 抱川: 大眞大學敎 出版部

李京源(1988), 『韓國 近代 天思想 硏究』서울: 성대 박사논문

黃善明(1990), 『宗敎學槪論』, 서울: 종로서적출판사